

한 방

8체질 이야기 만성질환과 수맥파

수맥파는 지구 고유의 과장인 지자기 파가 수맥에 의해 변조, 증폭된 생체 유해파이다. 우리 주변에는 수맥파 이외에도 각종 전기류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각종 유해 전자파가 많이 있다. 특히 핸드폰에서 발생하는 유해 전자파는 그 심각성이 여러 가지 연구와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그런데 휴대폰 전자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하고 해로운 수맥파가 여러분의 집에 흐르고 있다면, 특히 여러분의 침대 밑이나 자녀들이 공부하는 책상 밑 또는 직장에서 일하는 책상 밑을 흐르고 있다면, 그래서 하루에 7-8시간씩 수맥파에 노출된다면 과연 얼마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시키겠는가?

독일의 Dr.Hager M.D.의 22년간의 연구에 의하면 암 사망자 5,348명의 가택을 조사한 결과, 환자의 100%가 수맥파가 지나가는 침대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 산업의학 종합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수맥파를 쏘인 세포의 암세포에 대한 저항력이 75%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수맥파가 이처럼 인체의 면역력과 깊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수맥파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수

맥파를 차단한다는 각종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지만, 수맥파는 그런 장판이나 방석을 따라 흘러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치고 올라가 성층권까지 도달하는 차단 불가능한 파장이다.

임상에서 보면, 수맥파 위에서 생활하는 환자의 경우 치 료효과가 더디거나, 완치가 안 되고,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몸에는 수맥파를 검사할 수 있는 경혈점들이 몇 군데 있어서 그곳을 진맥해 보면 환자의 몸에 수맥파가 흐르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환자의 몸에 수맥파가 흐른다는 진단이 나오면 가능한 빨리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수맥파가 흐르는 지점을 찾아 그곳으로부터 떨어져서 생활해야만 질병의 완치가 가능하다.

특히 각종 만성병으로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경우, 만성적인 두통, 우울증, 만성피로, 불임, 불면, 악몽, 자녀들의 집중력 장애, 정신질환, 특히 암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수맥 검사를 통해 수맥파의 영향이 없는 곳에서 생활해야만 한다.

체질나라 한의원
원장 고진욱 Lic. Ac.
TEL (562) 673-8397
www.my8body.com



치과

신경 치료

“선생님, 이가 아파요. 신경을 좀 죽여주세요.”

치과에서 흔히 듣게 되는 환자들의 하소연 가운데 하나다. 치아에는 인체의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미세한 혈관과 수많은 신경가지들이 모여 있다. 이 신경가지들에 의해 차거나 뜨거운 감각, 통증을 느끼게 된다. 치아내 신경, 혈관 등은 다른 부위와 달리 단단한 조직 안에 갇혀 있다. 이 때문에 치아 속에 염증이 생겨도 다른 부위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고 병으로 진행된다.

치아 내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이다. 충치가 심해 신경까지 감염된 경우, 치아가 깨져 신경이 노출된 경우, 치아에 미세한 금이 있거나 때운 자리가 떨어져 나간 경우, 치아가 심하게 닳은 경우, 잇몸 질환 등으로 신경이 손상된 경우 등이다.

염증이 생기면 차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따르고 어느 치아가 아픈지 모르게 육신겨린다. 밤에 통증이 더 심하며 진통제를 먹어도 잘들지 않는다. 이럴 때는 빨리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 신경치료의 목적은 치아를 살리는데



있다. 신경치료는 단순히 치아 속의 신경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감염되고 염증이 생긴 부위를 없애고 신경관을 깨끗이 충전하는 것이다.

치아 안은 그물처럼 얽힌 신경과 혈관의 통로인데 병적인 상태가 됐을 경우 이런 신경, 혈관조직을 모두 치아 밖으로 제거해줘야 한다. 이런 미세조직들을 완벽하게 없애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든다. 환자들의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다.

염증이 치아 뿌리 주위까지 번졌을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받은 뒤 6개월 이상 지나야 조직이 치유된다. 따라서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완치될 때까지 씹을 때 딱딱한 물체를 씹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부서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철 치료를 해 주는 게 좋다.

남태준 종합치과
남태준 원장
TEL (714) 871-4962



건강

비타민 알고 먹읍시다 페루산삼 마카(MACA)

마카(Maca)는 페루를 ‘슈퍼푸드 생산지’로 알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의 페루 슈퍼푸드 시장은 마카가구의 유명세로 시작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2015년 미국 웰스트리트저널(WSJ)은 “마카가 새로운 ‘슈퍼푸드’ 대열에 합류하며 가격 폭등 현상이 심각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마카는 미국이나 유럽의 건강식품 회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가세하며 세계적인 품귀 현상을 빚었다. 현재 마카는 페루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슈퍼푸드 중 하나다.

수출량뿐만 아니라 현지 판매량도 많다. 마카는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슈퍼푸드다. 오래전부터 마카를 먹어왔던 페루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에 활용하고 있다.

마카는 안데스산맥의 해발 4,000m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다. 토양의 기운을 먹고 자라는 뿌리식물인 마카는 안데스 산맥에서 자라나는 강한 생존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마카의 뿌리와 알맹이는 감자와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으나 영양성분은 다르다.

마카는 100g당 단백질이 10~18g 들어 있는 고단백 식품이다. 또한 글의 1.5배에 달하는 아르기닌과 부추의 11배에 해당하는 아연, 마늘의 26배나 되는 칼슘, 더덕의 10배에 달하는 철분 등 31가지 이상의 풍부한 미네랄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인삼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도 풍부해 ‘페루의 인삼’으로 불려진다.

특히 마카는 남성에게 좋은 슈퍼푸드다. 유명하다.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호르몬 균형을 조절해주는 식물성 화합물질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다량 함유돼 있다.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시키며,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 페루에서 진행된 연구(2005)에선 마카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전립선 비대증 완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도 성호르몬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루를 포함한 남미에서는 오래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온 여성의 신체 회복이나 호르몬 균형을 위해 마카를 사용해왔다.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는 호르몬 불균형이 오기 쉬운 우주비행사에게도 마카를 제공하기도 한다.

항암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마카의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백혈구와 사이토카인을 조절해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섭취할 때는 주의할 점도 있다. 끓는 물 혹은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며, 생으로 먹는 것도 피해야 한다. 하루에 2~3번 정도 1티스푼씩 물이나 주스에 타서 마시거나 음식에 섞어서 복용하면 된다.

◆비타민전문점 (714) 534-4938

가정의학

당뇨병 합병증 - 급성 합병증(5) (Complication of DM-Acute Complication)

당뇨병을 관리(control of diabetes)한다는 것은 정상치 이상으로 올라간 고혈당(hyperglycemia) 상태를 정상으로 낮추어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혈당을 낮추는 과정에 오히려 너무 수치가 낮아져서 저혈당(hypoglycemia)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가벼운 증상(symptom)만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의식이 흐려지거나(confusion) 기절(syncope)할 수도 있으며, 심하면 뇌(brain)를 비롯한 주요 장기(organ)에 손상이 와서 사망(death)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의학적 응급 상태(true medical emergency)입니다.

정상적인 혈당은 아침식사 전(fasting)에 70~120mg/dL, 식사 후 2시간(post-meal 2 hour)에 140mg/dL를 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혈당은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혈당이 70mg/dL 이하로 내려가면 저혈당 상태로 보며, 50mg/dL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저혈당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높은 혈당을 유지

하고 있던 당뇨병 환자가 치료를 시작하면서 혈당치가 빠른 속도로 떨어져서 아직 정상 수치보다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혈당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혈당 조절을 하는 초기에는 담당의사와 면밀한 상의를 해가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 이외에도 저혈당을 일으키는 상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패혈증(sepsis), 과도한 음주, 설사(diarhea)를 동반한 장염(gastroenteritis), 장수술 후의 흡수장애(absorption disorder), 선천성 포도당대사 장애질환(congenital glucose metabolism disorders), 그리고 여러 가지 대사관련 호르몬의 장애 등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이런 질환과 구분하기 위해 당뇨병의 치료 중에 나타나는 저혈당을 당뇨병성 저혈당(diabetic hypoglycemia)이라고 구분하여 부릅니다.

오문목 가정의학비뇨기과
원장 오문목 의학박사
TEL (949) 552-8217

